

1.언어

시험 전에 쓰어법 문제 풀면서 감을 익힌다
비문학 몇 지문 읽으면서 독해감을 익힌다.

비문학 -> 운문 -> 산문으로 푼다.

EBS 효과는 굳이 자기가 의식하지 않더라도 도움이 되게 되어있다.
그런데 그걸 의식하는 순간 함정에 빠지거나 멘탈적으로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
아무 의식하지 않고 처음 보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푼다.

비문학

- 절대 기출의 사고로 움직인다. 무조건 눈을 믿는다. 지문의 근거와 논리만을 믿는다.
- 기술지문에서 과정 설명이 그림이랑 주어지는 경우 그림이랑 같이 이해하면서
1:1대응으로 풀고 넘긴다.
- 무조건 지문 근거와 지문 논리로 보기를 해결하고 내용 일치추론문제는
3-4-5-2-1로 읽는다.
- 시간 많이 끄는 것 같고 멘탈이 힘들어지는 것 같으면 과감하게 찍고 넘긴다.
다만 반드시 OMR에 반쯤 마킹해라
- 다 풀고 30분 이상 남기는 것을 목표로 하자.

문학 - 보기부터 읽자

2. 수리 가형

1. 시험 시작하면 잠시 문항구성 훑어본다.
 2. 초반에 위기는 존재할 수 없다. 왜냐면 내가 만들지 않을거니까. 무조건 넘길거니까
2점, 3점 순으로 80분 안에 해결한다.
조금이라도 느낌이 이상하거나 계산 복잡해지면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넘긴다.
 3. 무한등비급수 -> 증명문제 (결과의 활용) -> 방부등식 그래프
(1. 그래프 2. 무연근 체크 3. 인수분해 식 정리 후 내가 아는 그래프 꼴의 활용)
- > 행렬 기호 (일반적 행렬이면 역행렬이나 교환법칙에 유념해서 본다/
고유행렬이 주어지면 계산을 해야 할 것이다라는 마음가짐)
- > 통계 (표준편차인지 분산인지 주의 z값 적고 시작) -> 이차곡선 (정의, 접선 방정식)
- > 벡터 (합벡터 - 1. 분점해석 2. 성분분해 3. 모양이 예쁘면 좌표 4. 길이를 알면 제공하고
려 (자유로운 평행이동), 내적 - 1. 정의 2. 정사영 3. 성분분해 4. 좌표 5. 제공)
- > 삼각함수의 극한 도형 (분모가 세타가 아니면 그 세타 각을 그림에서 찾되 잘 안 보이
고 분모가 일차식이면 미분계수라는 만능통치약을 사용한다.)
- > 그리고 차례대로 19,20,21,28,29,30 남기고 다 푼다.
- > 다시 처음부터 못 푼 문제 해결한다. 이 때도 오래 끌지 않는다.
- > 19,20 -> 28 -> 21 -> 29 -> 30 으로 해결해가되
30분이 남은 경우 무조건 omr에 푼 문제 마킹부터 한다.
- > 시간이 남으면 헛갈렸던 문제 -> 객관식 답 개수 -> 주관식 -> 객관식 순으로 검토

* 미적분 그래프

- 미분한다. 이계도함수를 쉽게 구할 수 있으면 변곡점도 구한다. 그 점의 좌표를 적는다.
- 알기 쉬운 몇 개 점 대입해서 그 점의 좌표와 기울기를 적는다.
- 함수의 범위, 우함수/ 기함수 특징,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수렴값을 생각하여 그래프를 되도록 정확하게 그린다.
- 중간값 정리, 평균값 정리, 내가 아는 그래프의 교점을 활용한다. (특히 미분이 잘 안 될 때)
- 변곡점 유념한다.

* 기하문제를 푸는 마음가짐

- 숫자 예민 완벽 그림 (특수각 주의, 길이 주의 최대한 정확하게)
- 문제 상황이 잘 파악이 안되면 본질만 뽑아서 다양한 각도에서 그려서 이해한다.
- 문제 상황은 이해 가는데 그림이 복잡한 경우 필요한 부분만 뽑아서 쉽게 그린다.
- 기본보조선은 긋고 본다는 마음가짐. 보조선을 긋는 이유는 머릿속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어주는 것이고 특별히 기본보조선은 반드시 긋는 과정을 통해 의미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긋는다. 공간 3차원의 위치 관계를 파악하는 보조선의 핵심은 삼수선 정리이다.
- 이면각 문제
(1. 교선 찾고 양쪽직각(삼수선정리) 2. 정사영
3. 그림이 좀 예쁘면 좌표 두 위치벡터만 알아서 외적해서 구한다.)

* 30번 발견적 추론 문제

1. 문제 예시 + 예시 2개 더 들면서 문제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자 노력한다. 그래프를 활용할 경우 완벽하게 그림 그린다.
2. 변화하는 특징을 파악하고 기준점을 찾는다.
3. 실수 없이 문제 조건 유념하며 깨끗이 계산해낸다.

* 문제를 넘기는 마음가짐.

1. 경험상 문제 넘기고 다시 온다해서 그 문제 상황을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거 절대 아님 오히려 그거보다 멘탈 문제가 훨씬 비중이 크고 중요함. 특히 초반에 무조건 넘긴다. 초반에 잘 풀리지 않으면 굉장히 멘탈이 힘들어진다. 그리고 쉬운문제인 경우 4점 풀다가 다시 오면 쉽게 풀리는 경우가 많다.
2. 이렇게 말해도 못 넘기는데, 도대체 왜 그러는거야!!! 논리적으로 사고하자 멘탈의 핵심은 넘기는데 있다.

* 검토하는 마음가짐

1. 어차피 검토해도 머리는 오류를 따라가므로 다 지우고 깨끗이 전체에 실수 한 게 없는지 확인하며 푼다.